오늘의 게시판

사랑의 선율을 노래하는 남자들 제 16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행사

〈13일〉

▲의신면 노인위안잔치=오전 11시 진도군 의신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제 87회 전국체전 참가 전남선수단 해단식=오후 3시 전남도청 왕인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2006년도 정기운영 위원회=오전 11시 광주 센트럴 호텔.

〈14일〉

▲자녀교육을 위한 보모교육 교양강좌=오전 10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광주청소년상담지원센터 김희국씨가 '자녀의 자율성 키워주기 및 자녀와의 갈등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강연.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기자회견=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 사무실.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오후 3시 광주시청 소회의실.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내년 청소년수련활동 사업 등 운영계획안 마련.

▲여수시장기 재난대비 응급처치 및 안전결의대회=여수시 거북선공원 잔디광장. 여수산단 20여개 입주업체 250여명 참여해 보호의 착용·인명구조·구조호흡·기도유지·심폐소생술·환자 운반 등 분양에서 경연.

공연

▲사랑의 선율을 노래하는 남자들 제 16회 정기연주회=13일(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기영은 피아노 독주회=13일(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제2회 광주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13일(월) 오후 7시30분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2006 빛고을 소리청=13~24일(토·일 제외)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광주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을밤 오페라여행'=14일(화)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41회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향연'=14일(화)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제9회 초등교사 정기연주회=14일(화) 오후 7시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전시

▲국제환경 사진전=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공간. '물 오르다'라는 주제로, 물의 역사·문화·미학·사회학 등 물의 모든 측면을 조명. 김수남·박종우 등 국내작가 9명, 프랑스 마리 폴 네그르 등 해외학자 32명 등 41명 참여. 물 오르다·씻김·영혼의 선물·물의 행성 등 4개 섹션으로 구성.

▲화인회전=15일까지 상계갤러리.

▲대한항공 사진전=15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조선대학교 공예도자디자인 졸업전=17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한국노동문화협회 광주지부 회원작품 전시회=18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주재현전=15일까지 신세계갤러리.

▲박홍수 개인전=15일까지 무등갤러리 신관.

▲그룹 라이브 초대전=22일까지 지산갤러리.

▲오상문 도자전=13일까지 무등예술관 본관.

▲고광입 개인전=17일까지 일곡갤러리.

▲선묵회전=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광주시 건축사 미술동호회 정기전=13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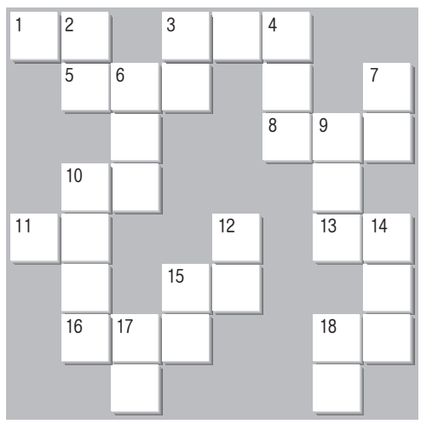
▲마음으로 읽는 아트북 순회전=22일까지 우제길 미술관.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타향속에 삶과예술=14일까지 의재미술관.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함께 풀어봅시다 < 227 >



➔ 가로풀이

1.축하해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잔치, 축전. 요즘 열리는 대학 ~는 과거에 비해 낭만적이지 못한 것 같다. 3.글의 중심 내용이 앞부분과 끝 부분에 반복해 나타나는 문장 구성 방식.→쌍괄식. 5. 서로 깊이 사랑하여 혼인하기로 약속한 여자. 8. 어떤 특정 사람을 사무치게 미워하는 마음. 그의 두 눈은 ~과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10.세차게 타오르는 불꽃. 또는 세차게 일어나는 감정이나 정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동네는 순식간에 ~에 휩싸였다. ~을 잡지 못했다면 온 동네가 잿더미로 변할 뻔 했다. 11.간결하게 추려 낸 주요 내용.→대략. 사건의 ~를 설명하다. 13.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지로 해 보고 익히는 일. 실업계 고교에는 ~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15.일정한 장소를 지나다님. 좌측 ~. 16. 갑자기 물의 표면으로 떠오름. 또는 어떤 계기로 갑자기 세상에 알려지거나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철수의 ~으로 반장 선거 판도가 바뀌었다. 18.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땅.→대지.

➔ 세로풀이

2.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 각국의 보호 무역으로 수출에 ~이 많다. 3.수양딸. 또는 입양에 의해 혼인 중 출생한 딸로서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 4.음식을 먹은 뒤에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상. 6.혼인할 기회나 자리.→혼인길. 그 소문이 나면 그 처녀는 ~이 막힐 것이다. 7. 강이나 바다,호수 등의 물의 깊이. ~이 얕다. 9. 컴퓨터 게임 등을 할 수 있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 학교 앞의 ~은 방과 후면 항상 아이들로 북적댔다. 10.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 회사 형편이 좋지 않으니 ~한 비용은 줄여야 한다. 12.일정한 임무를 띠고 가는 높은 지위의 사람을 따라감. 또는 그 사람. 외국 방문에 나서는 대통령을 ~하다. 14.글씨 쓰기를 연습할 때나 밑그림을 베낄 때 쓰는 얇은 종이. 원본 위에 이것을 깔면 원본의 글자나 그림을 그대로 쓰거나 그릴 수 있다. 15.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임.→보통. 우리 가족은 ~ 오전 7시에 일어난다. 17.한자 자전에서 글자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공통되는 글자의 한 부분. 18.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함. 예산이 ~해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지는 못한다.

폭	발				순	이	익	
	탁	발		열	연		반	
		상	속	세		가	죽	
	외	지				중		
실	투		자	국		처	제	
핏		후	각		체	벌		
줄	넘	기		대	결			
			조	각				

〈함께 풀어봅시다 226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김이준·광주시 남구 주월동

강재희·여수시 여서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뉴스퀴즈

38.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 당이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 선거를 석권했습니다. 이 당은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 선거에서 총 232석을 확보, 과반선인 218석을 넘어섰고, 상원의석과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의회 공화당 지배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의회 운영 방식을 비롯, 한미관계, 북핵, 이라크전 등 대내외 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년만에 의회 권력을 되찾은 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민주당 ② 공화당 ③ 국민당 ④ 자유당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3일(음 9월 23일 丙午)

子 36년생 기쁜 이리 한꺼번에 나타난다. 48년생 공짜 술에 병나니 가지마라. 60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72년생 뜻하지 않은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84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 행운의 숫자 : 07, 30

丑 37년생 큰 것을 취하라. 49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 61년생 부부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가 되리라. 73년생 자기 자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라. 85년생 이성을 만나보라 좋은 진행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1, 37

寅 38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50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을 내 탓으로 생각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62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이다. 74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 행운의 숫자 : 14, 36

卯 39년생 지출도 투자로 생각하라. 51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3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75년생 애인과 즐거움은 있으나 마무리가 서운하다. 행운의 숫자 : 17, 40

辰 40년생 주변의 변화가 손재로 들어오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2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64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가능한 피하라. 76년생 소탐대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03, 25

巳 41년생 불연이면 시비에 휘말린다. 53년생 일실일득이나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다. 65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는 자신이. 77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은 미래의 행복이다. 행운의 숫자 : 05, 38

午 42년생 새로운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54년생 아내의 건강도 살펴보면 애정도 솟는다. 66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하며 하루를 지내라. 78년생 뒤를 한번 돌아보면 손실이 줄어든다. 행운의 숫자 : 06, 29

未 43년생 재물과 처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으니 애정으로 돌보라. 55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67년생 제사가 불리하니 주변을 살펴보라. 79년생 힘껏 달려보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19,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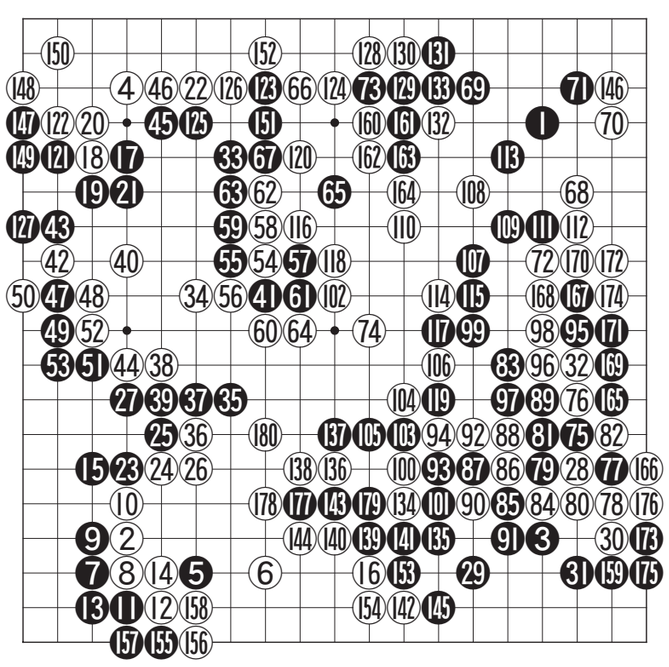
申 44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아내와 이해가 부족 되니 대화가 필요하다. 56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지만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8년생 흉보다 길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라. 80년생 좋은 일과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11, 40

酉 45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7년생 춘화기가 발동하면 망신수가 발생한다. 69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81년생 기상천외한 횡재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가 증가된다. 행운의 숫자 : 12, 36

戌 46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8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지게 행동하라. 70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82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8, 33

亥 47년생 실물수는 있으나 재물도 들어온다. 5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71년생 수족의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83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대단히 불리해진다. 행운의 숫자 : 09,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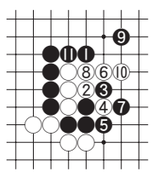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완벽한 마무리 3회전 총보(1~180)

白 유병수 5단 〈포스코〉 黑 박명수 5단 〈농협〉



〈참고도〉

이 바둑은 전기 준우승자인 박명수 5단과 첫 출전에서 4연승을 기록한 유병수 5단의 대결로 결승전 못지않은 관심을 모았다.

초반부터 좌변에서 불꽃튀는 접전이 벌어졌는데 흑 35와 41의 모자 등 기세에서는 박 5단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백 석점이 움직이리라는 일방적인 생각으로 65로 두었는데 이때 유 5단이 요석처럼 보이는 백 석점을 버리고 66으로 두어간 수가 대세에 밝은 수로 승착이 되었다.

흑 65로는 앞에서도 설명한대로 '참고도'의 흑 1로 바로 씌워 석점을 압박해야 했다. 이러면 백 석점을 잡더라도 활용을 당하지 않으며 도망을 가더라도 11까지 추격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승기를 잡고나서 안전운행으로 박 5단의 추격을 뿌리친 유 5단의 마무리가 칭찬할만한 한 판이었다. 백 180 수 끝. 백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이하진 등 5명 대표선발전 통과

이하진 2단, 현미진 4단, 김혜민 4단, 이민진 5단이 제5회 정관장배 세계여자 바둑 최강전 국내선발전을 통과,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민진 5단은 최근 한국기원에서 열린 선발전에서 전기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출전권을 따내 눈길을 끌었고, 김영삼 7단과 올해 결혼한 현미진 4단도 대표팀에 합류했다.

박지은 6단은 제2회 대회 우승자로 후원사의 요청에 따라 시드배정을 받아 출전권을 확보했다. 여류 강호로 꼽히는 조혜연 7단과 한해원 3단은 선발전에 불참했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7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74>

take ~ for granted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A:Why are you so upset?
B:You see, I did job as best I could.
A:Then you don't need to be upset.
B:But my boss just **took it for granted.** He didn't appreciate it.

A:왜 그렇게 화가 나있니?
B:아시잖아요, 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했거든요.
A:그러면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잖니?
B: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단지 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니까요.** 그 분은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be upset : 고마워하다
You see : 아시다시피, 아시겠어요, 있잖아요
as best one can = as best as possible
don't need to = don't have to
take it for granted that~ =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74>

人間ショウインド型(かた)の店よ

'인간쇼윈도우형' 가게야

A:ほら、あれ見て。**人間(にんげん)ショウインド型(かた)の店よ**。
B:どこどこ?うわ、人に見られて、視線、氣にならないのかしらね。
A:最近、流行(はや)っているのよ。ああいう店。お客(きゃく)が'見られる' 快感(かいかん)を感(かん)じるんですって。
B:へえ、私たちも、あの店、入(はい)ってみない?

A:이봐, 저거 봐. '인간쇼윈도우형' 가게야.
B:어디어디? 우와,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시선 신경 쓰이지 않을까?
A:요즘 유행하고 있어. 저런 가게. 손님이 '보이는' 쾌감을 느끼는 거라고….
B:허! 우리들도 저 가게 들어가 보지 않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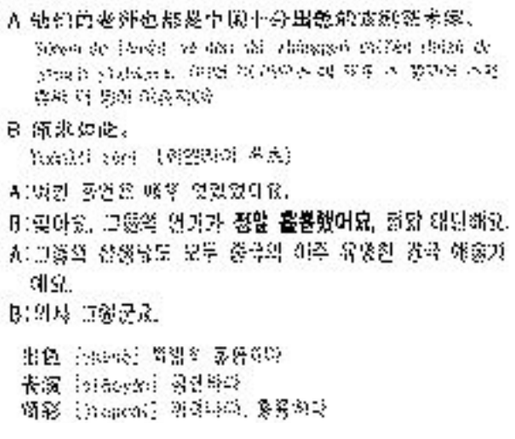
- 流行(はや)る : 유행하다
- 快感(かいかん) : 쾌감
- 感(かん)じる : 느끼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92>

出色

특별히 훌륭하다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92>

貨 幣 (화 폐)

재화 화, 돈 폐

우리나라에서 쇠붙이를 녹여 만든 주화(鑄貨)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주로 무명이 화폐(貨幣)의 역할을 하였다. 무명은 곧 돈이었으며, 무명만 있으면 집이든, 논이든 쌀이든 못 사는 것이 없었다.

교환수단(交換手段)이 되는 무명을 추포(麤布 : 옷감의 올이 성긴 베)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추포는 창고에 오래 쌓아 놓으면 쥐와 좀이 갉아 먹고, 또 습기 때문에 쉽게 상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추포의 가치(價値)는 점점 떨어져 교환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추포 대신에 쌀을 교환수단으로도 사용하였으나, 무거워서 이동하기가 어려웠다. 종이돈인 저화(楮貨)도 사용하였으나, 얇아서 찢어지기 쉽고 습기에 견디지 못하므로 상인과 농민들은 저화 사용을 싫어하였다.

중국처럼 동전 화폐를 사용하고 싶어도 구리와 쇠가 부족하고, 동전 만드는 기술도 모자랐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근 50여년에 걸쳐 동전유통 정책을 펴서 일반 백성들도 동전의 편리함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숙종4년(1678)에는 전국적으로 화폐를 사용기로 결정하였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